

교회소식

1. 6월에 교회가 다시 열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말씀과 함께 하는 하루”와 “합심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3. 코로나19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4. 교회 각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합시다.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지난 주 통계			
주일헌금	CD \$30	1,2,25	
감사헌금	CD \$20	1,2,	
장년 출석	가정예배	어린이 출석	가정예배

가정예배 지침서

1. 예배 시간을 미리 공지해 주시고 온 가족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2. 의복을 잘 갖춰 입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동영상 시청은 큰 기기 하나를 준비해서 가급적 온 가족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각 개인이 다른 기기를 가지고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3. 온 가족 구성원이 예배의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순서를 돌아가며 말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여는 기도와 예배 인도는 아버지, 대표기도는 어머니, 성경봉독은 자녀들이 맡으면 됩니다.
4. 찬양은 동영상을 참고하여 모두가 큰 소리로 함께 부릅니다.
5. 설교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동영상 시청 중 자리를 이동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6. 합심기도는 5가지의 기도제목 외에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들을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마침기도는 연장자가 하겠습니다.
7.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8. 헌금은 E-transfer로 합니다. (mahanaim0904@gmail.com) 패스워드는 (JESUS)로 해주세요.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홈페이지: www.dartmouth-k-church.com

예배 안내: 주일예배 2:00PM 본당

어린이교회 2:00PM 지하 청소년교회 1:30PM 지하

담임목사: 김승용 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가정 예배 순서

여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말은이
찬양	내 맘이 낙심되며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함께
대표기도		말은이

마태복음 8:23-27

	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도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 라	
성경봉독	25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말은이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 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하고 곧 일 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설 교	왜 무서워하느냐?	김승용목사
교회소식	동영상 참조	김승용목사
결단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함께
합심기도	캐나다와 코로나19 종식과 캐나다를 위하여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목회자 칼럼

복음서에 보면 폭풍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몇가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가 많았다는 점에서 보면 일견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는 성경의 표현처럼 큰 폭풍 가운데 침몰의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다급히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하고 하시며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에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에도 폭풍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문제를 더욱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거센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이상해 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둘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만나면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두 눈으로 목격하며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며 안심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주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침묵의 시간에 우리는 폭풍을 두려워하며 패닉에 빠져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을 믿음이 작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폭풍을 무서워했을까요? 그건 그들의 지난 어부의 삶의 경험에서 얻은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의 경험, 지식... 보다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제자들이 보여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무신 것은 제자들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이 정도는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라는 제자들을 향한 신뢰가 담긴 행동인 것입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주님은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을 때 이미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폭 주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만난 삶의 문제로 인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항해를 취소하려고도 하고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혹은 올바른 길로 나아감에 더 큰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굳건히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방향은 늘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성숙함을 드러내어 승리하는 모습을 침묵으로 지켜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침묵은 더 큰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세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 가운데 침묵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시련 속에서 올바른 대응을 하겠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왜 무서워 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폭풍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헤쳐나가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 담겨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가 혼돈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폭풍이 우리가 탄 배를 침몰시키지 않을까? 우리는 염려하고 무서워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반응을 넘어 예수님은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으로 이 폭풍을 헤쳐나가며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시길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미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호와와의 정결하고 온전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기에 세상의 어지러운 잣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를 덮는 물결이 치나 주님과 함께하기에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작고 큰 일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하나님만 찾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치며 믿음의 삶을 드러내십시오.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